
배합사료 수입자유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사료협회 김치영

●개방의 물결

지난 7월 1일부터 국내 양계용 및 애완용 배합사료가 수입자유화품목으로 고시되면서 그동안 쿼터소진과 국내사료판매경쟁등으로 시달려왔던 사료업계는 뜻하지 않은 또 하나의 개방속크로 인해 망연자실을 금치못하고 있다.

일부 양계용 및 애완용 사료에만 수입자유화가 취해졌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양계용배합사료가 국내배합사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양돈 및 축우용으로의 용도변경이 용이하다는 제품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양계용 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는 전체 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와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특히 원료수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수입의 자유화가 취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굳이 순서에 입각해 개방을 행한다면 사료업계로서 가장 나중에 취해져야 할 것이 양계용 사료이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수입자유화 논란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취해 지리라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그러나 어쨌든 한쪽 제방뚝이 무너져 내린이상 붓물이 넘쳐흐를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그동안 물막이

역활을 해오던 국내양축가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않다. 일단 구멍난 제방뚝을 다시 쌓아 물을 막기란 구멍을 뚫기보다 몇곱절 어렵듯이, 앞으로 축산부문의 개방범위는 더욱 넓어질 수는 있으나 줄어 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양축가의 입장에서 단순히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좋아할지도 모르나 보다 긴안목에서 볼 때 국내 축산물의 기본요소시장인 배합사료시장이 자유화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를 먹고 자란 축산물 자체의 수입자유화논리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미 양계용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와 병행하여 일부 양계산물인 설육이 개방되었다는 사실이 이점을 시사하고 있다.

어느 나라이든 시장개방을 선뜻 받아들이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듯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부에서도 당초 86년 7월 1일부터 수입자유화 예시품목으로 되어 있던 옥수수, 수수등 사료용곡물과 배합사료 전체품에 대해 국내농업보호와 농업부과금제도 전제품목임을 들어 유보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무역수지등을 이유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은 결국 국내시장의 수문장 격인 상공부를 굴복시키고, 어쩌면

본연의 의도였을지도 모를 원료시장과 축산물시장 개방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유야 어찌했든 전말이 뒤바뀐 제품시장의 개방은 현재의 사료업체가 처해져있는 불형평적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단안이었으며, 이로 인해 충격파는 사료업계에 국한하지 않고, 축산업은 물론 연관산업과 크게는 국내농업보호정책에까지 파급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사료업계에 불어온 수입개방의 물결과 이에따른 동업계의 대응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 국민 경제적 손실

지난해말 현재 국내배합사료공장은 축협계 사료공장을 포함해 총 81개로 년산능력 517만톤을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생산실적은 645만7천톤으로 대략 124%의 가동율을 나타내고 있다. 당업계의 가동율 124%는 일일 8시간, 한달 25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타 제조업에 비하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료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장치산업으로 일일 2~3 교대는 되어야만이 정상적인 가동이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사료업계는 시설과잉양상이 뚜렷하다. 이 때문에 배합사료수입자유화로 인해 완제품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사료업계는 시설자원의 유희화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사료산업의 유희화현상은 비단 국내사료업계 뿐만 아니라 배합사료제조와 관련된 연관산업인 동물약품, 단미사료, 제지회사 국내 옥수수 및 보리경작업등 타산업에 대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86년 현재 배합사료산업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은 대략 9,000~12,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국내산 옥수수와 경작농민까지 포함시킬 때 이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수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배합사료의 수입자유화가가

저울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는 우선 이분야에 종사하는 고용력의 감소 및 부가가치축소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제품시장이 개방되기 이전에 취해져왔던 원료시장의 불형평적 조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배합사료 수입이 강행될 경우 자칫 국내배합사료 가격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되는 가격차이로인해 외화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이미 주지하는 바와같이 국내농업보호 및 부존자원의 활용을 위해 상당량의 국내산 보리와 옥수수를 인수 사용하고 있으며, 곡류 및 옥수수등 수입원료에 대해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사료수급에 대한 제정책을 도외시한 채 타국 배합사료와 경쟁케할 경우 사료수입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내자원비로 왜곡된 만큼, 그리고 국내사료수급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시책상의 고 비용으로 왜곡된 가격만큼이 외화로 낭비될 수 있다. 이상이 배합사료 수입자유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경제적 마이너스 효과에 해당된다.

● 절름발이식 경쟁

한편 국내사료업계가 시장개방에 직면하여 형평적 차원에서 안고있는 불리한 점을 열거해보면 우선 무엇보다도 수입곡류사용 한도를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배합사료업계는 제품경쟁의 자율화가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외화절약이라는 대명제에 눌러 전체 곡류사용은 물론 개별공장의 수입사료곡류 사용이 제약받고 있기 때문에 제품생산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즉 86년도 한해 곡류사용한도량은 384만 5천톤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금번도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곡류사용량은 176만2,481톤으로 월평균 35만2,496톤을 사용했다. 따라서 지금같은 추세대로라면 대략 38만5천톤가량의 곡류가 부족하게 되며, 이와같은 곡류수입쿼터가 지속될 경우 과부족분에 대한 제품수입은 불가피하게

된다. 쿼터제도를 통해 사료수입을 억제하고 국내부존자원 활용을 유도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읽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국내 부존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하에서의 부존자원활용이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관세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배합사료 원료는 곡류의 경우 7%, 강피류 7%, 식물성박류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중공, 태국 등의 경우 배합사료 주원료의 생산국들이며, 수입국인 일본은 대부분의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이든 수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최우선적인 배려와 함께 수출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한다. 따라서 현행 관세제도하에서 원료를 수입,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 경쟁조건이 그만큼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금번 배합사료 수입자유화는 흔히 우리 사료업계의 한쪽발을 묶어두고 타국의 사료업계와 경쟁을 시키는 것으로 비유되곤 한다. 왜냐하면 국내 사료업계가 너무도 형평적차원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주요사료용 원료의 관세내역

품 목	한 국	일 본
옥 수 수	7%	0 (AA)
수 수	7%	0 (AA)
소 맥	7%	0 (IQ)
대 맥	7%	0 (IQ)
호 밀	7%	5 (AA)
소 맥 피	7%	0 (AA)
G. S. P.	7%	0 (AA)
타 피 오 카	7%	0 (AA)
대 두 박	10%	0 (AA)
채 종 박	10%	0 (AA)
해바라기박	10%	0 (AA)

● 40~50% 경쟁력 손실

또한 곡류쿼터, 관세제도 뿐만 아니라 원료

의 자유로운 선택구매에 있어서도 크게 불리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료용 원료수급계획에 따르면 곡류수입을 줄이기 위해 전체 사료용 원료사용량중 곡류사용비를 64%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사료곡물다양화시책의 일환으로 전체 곡류사용량중 옥수수 사용비율도 규제하고 있다. 즉 1986년 1월 1일부로 옥수수 사용비를 60%로 제한한 이후 86년 2월 18일에는 66%로 변경했고, 다시 6월 20일 원료시세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 72%로 상향조정했다. 결국 외화절약을 위해 취해진 현행사료수급계획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할 경우 여러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오히려 외화낭비가 이루어지며, 이로인해 배합사료제조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즉 금년초 값싼 태국산 옥수수의 사용에 제동이 걸린 점, 그리고 최근 값싼 곡류 원료대신 부득불 값비싼 강피류(소맥피)를 구입, 사용해야했던 점들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현재 국내사료업계는 국내부존자원활용차원에서 국내산 보리 및 옥수수를 인수·사용하고 있다. 즉 양곡용 보리재고가 크게 줄어든 지난 한해동안만도 국내사료업계는 국내산보리를 28만7,221 톤과 국내산 옥수수 5만6,515톤을 인수 사용했다. 그런데 국내산 원료의 경우 국내생산비용(DRC)의 불리함으로 인해 대체로 3배이상 비싼 가격이다. 즉 옥수수의 경우 3.6배, 보리의 경우 4.8배이며, 수입대두를 가공한후 국내 사료업계에 공급하는 국산가공대두박 가격역시 1.3배 이상 비싼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산 배합사료와 경쟁키 위해서는 값비싼 국내산 원료사용이 이젠 불가능한 실정이며, 만일 국내산 원료를 사용 배합사료를 생산해 낼때 제품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을 지닐 수가 없다.

그밖에도 사료원료중 보리, 쇠미, Casein 면실, whey powder, 비타민, 인산제 등의 품목은 수입금지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

라서는 보리등의 값싼 원료구매가 불가능하고, 알팔파등의 수입금지로 인해 사료의 품질경쟁이 불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대두박, 어분, 육골분이 원료사용상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음은 물론, 구매시기도 제한 받아 효율적인 구매가 어려워 지기도 한다.

이상에서 열거한 몇가지 이외에도 원료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수입이 이루어질 경우 불리한 것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최근 이와같은 형평차원에서의 국내 배합사료업체의 불리점을 계량화하기 위해 일본과 같이 무제한, 무관세 하에서 배합사료 최소배합비를 산출해본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현행 우리나라 여건하에서 이루어지는 최소배합비에 비해 40~50%가 불리해진다. 따라서 현행 수입사료에 대한 20% 관세 부과는 수입사료를 막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

● 배합사료 수입가능성

일반적으로 원료와는 달리 배합사료는 변질우려가 크고 운송 및 수송상의 고비용으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 너무도 불리하기 때문에 의외로 수입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현재 배합사료제품수출이 가능한 지역으로는 값싼 원료확보가 용이하거나 또는 지리적으로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는 일본, 미국, 중공, 태국등을 들을 수가 있다. 이중 일본은 배합사료 제조기술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 우위에 있고, 특히 우리나라와 근거리 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변질우려가 해결되며, 값싼 원료자원의 확보 및 자국내의 과잉공급문제를 감안할 때 가장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배합사료가격면에서 보면 대략 30~40% 높은 수준이어서 당장은 일본의 배합사료가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일본 배합사료

의 사료효율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 향후 엔화가치의 절하 및 원화가치의 절상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한국시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시장차별가격등을 쓸 경우 가격차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운임상의 고비용문제 역시 일본 코오베, 또는 오사카항에서 부산까지의 한일항로의 컨테이너 비용이 1 teu (20feet 컨테이너 단위) 당 482불로 일톤당 27불내외가 소요되나 이는 Nego 에 대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해지며 항해일수도 1~2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15일 이상이 소요되는 미국, 태국 등에서도 항산화제나 항곰팡이제등을 사용하여 선적할 경우 품질상의 안전문제는 해결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평면적으로 배합사료제품에 대한 가격비교와 운영비용을 분석해 수입 가능성을 논할 때 수입의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여러가지 경제외적인 상황과 앞으로 예상 가능한 경제적 변화등을 고려할 때 배합사료의 수입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예컨대 일본의 엔화강세가 약세로 반전되거나, 한국의 원화가치가 절상될 경우, 일본이 배합사료 과잉판매경쟁으로인해 수출지향전략을 취할 때, 일본의 종합상사가 값싼 원료를 다량 매점할 경우 기술혁신으로 인해 Cost down 이 이루어질 경우, 중공등에 현지합작투자를 실시할 경우등을 얼마든지 가정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일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미국의 상당수 기업들이 중공에 현지투자하여 배합사료공장을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근거리 에 위치할 수 있으며, 값싼 중공산 사료용 원료등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양계용사료의 상당비율이 펠렛화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패 변질성의 문제는 더욱 반감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우리의 배합사료 제조여건중 원료확보가 타국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한 값싼 원료와 고

배합사료 수입 가능성 검토

	유 리 성	불 리 성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 - 부패, 변질성 해결 - 낮은 선임 •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우위 • 일본 사료업체의 과잉공급 시설 • 대규모화 됨에 따라 제조원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상실 • 배합사료 제품의 고가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값비싼 원료자원 확보 용이 •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우위 • 원료 수출저조에 대응한 제품수출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에 위치 - 운송도중의 부패, 변질우려 • - 높은 선임
중 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값싼 원료자원 확보, 용이 • 지리적으로 근거리에 위치 - 부패, 변질성 해결 - 낮은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및 상표상의 문제 (정치, 경제적 요인) •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저위
태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값싼 원료 자원 확보, 용이 •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합사료 제조기술 수준의 저위 • 일부 원료 확보상의 경쟁력 미비 • 운송 도중의 부패, 변질 우려

품질의 원료들이 값싼 반제품형태로 변형되어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내 배합사료업체와서는 현재 수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똑같은 경쟁조건을 갖기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 비관세 장벽 강화해야

배합사료 수입자유화에 대처하는 국내사료업체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은 동등한 형평조건의 부여이다. 즉 제품이 자유화된 현실점하에서도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곡류 및 옥수수등의 사용비율과 곡류사용한도량등은 철폐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 전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수입자동화품목지정이 시급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값비싼 국산보리, 국산 옥수수, 국내가공대두박의 우선적 사용은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진 지금에 있어서 전혀 현실성이 없기때문에 국내부존자원활용에 대해 재검토가 따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배합사료의 수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국내산업보호를 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료는 가축의 기본식량으로 좁게는 가축의 성장 및 축산물생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넓게는 인간의 식생활 담당하는 고단백자원의 공급원인 만큼 엄격한 검사규정 및 수입자격요건이 강화되어야 한다. 물론 배합사료 수입시에는 사양실험을 통해 국내 가축에 대한 적응도 분석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별 사양표준은 기후조건, 사양조건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원료성분상의 구성에 따라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양축가의 자세로서 국내 배합사료공장에 대해서는 가격경쟁력강화를 요구하고, 품질향상등을 촉구하되 실제 외국에서 생산된 수입사료를 이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